

격려사

대애도 비구니의 시가 테리가다(THERIGATHA)에 전해오는데, 그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언제나 확고하게 정진하고 화합하고 있는 부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을 올바로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마야부인은 고다마 붓대를 낳았습니다. 마야부인은 병과 죽음에 얽매인 사람들을 위하여 수많은 괴로움을 제거하였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모이자 길러준 양어머니이며, 최초의 비구니였던 대애도 비구니로부터 여성출가의 전통이 끊임없이 이어져 오늘날 우리 한국불교의 출가수행자 가운데 절반이 비구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구니 구성 비율과 위상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누구나 부러워하며, 질적으로도 수행·포교·교육·중생교화 등에서 높은 수준의 역량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비구니 스님들이 모인 전국비구니회는 대애도 비구니께서 말씀하셨듯이, 언제나 확고하게 정진하고 또 화합하는 모범을 보여 왔습니다. 전국비구니회에서 개최하는 경전산림, 수행전통을 찾기 위한 포럼 등 활발한 활동과 전국 각처의 선원과 강원에서 정진하시는 비구니스님들을 볼 때 한국불교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지금의 제9대 회장에 명성 스님을 모실 때에도 만장일치로 추대하는 화합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참으로 부처님을 올바로 경배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애도 비구니는 또 언니인 마야부인을 언급했습니다. 여성이야말로 모든 부처님을 낳은 어머니이며, 병과 죽음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존재라는 점을 밝힌 것입니다. 마야부인의 공덕을 상기하면 현대사회에서 불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인지 답이 분명해집니다. 불교의 역할은 어머

니처럼 자애로운 마음과 실천으로 중생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향 각지에서 많은 비구니스님들이 훌륭한 활동을 통해 불교의 대사회적 위상을 높이고 있으며, 특히 복지 분야에서 장점을 십분 발휘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을 낳고 사랑하신 어머니의 자비로움과 선천적으로 여성이 지니고 있는 인내와 섬세함 등이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특히 큰 힘을 발휘합니다. 비구니 스님들의 봉사는 관세음보살처럼 환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5일, 대한불교조계종 제33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하는 영광스런 법회자리에서 종도를 대표해서 전국비구니회 성관스님은 “종단은 나날이 번영하고 세상은 더욱 평화롭기를” 발원했습니다. 이 발원을 들으며 전 종도와 국민의 소망을 담아 종단의 번영과 세상의 평화를 이루어 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당연한 사실을 되새겼습니다. 총무원장이라는 자리에 영광과 축복만이 담긴 것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 무거운 책임이 함께 하는 자리라는 점을 새삼 느껴졌습니다.

지금 나라 안팎으로 경제적 위기와 사회적 갈등이 심각합니다. 세계 인류는 경제위기와 신종플루 같은 질병의 위협아래 떨고 있으며 기업도산과 실직, 전쟁과 테러에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야말로 나눔과 봉사, 위로와 용서, 화합과 평화의 자비정신이 필요합니다. 불교는 우리 시대 중생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를 바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절망의 시대에 새로운 희망을 건설하려면 먼저 소통과 화합이 필요합니다. 우리 종단 구성원들이 내부적으로 원활하게 소통하고 또 세상과 소통하여야 합니다. 서로 화합한 단결된 힘으로 중생들과 화합하여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종단 운영에 종도들의 협력과 동참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비구니 스님들이 종단내 비중과 역할에 걸맞는 비구니 위상의 강화를 바라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비구니 스님들이 종단의 주인으로서 더욱 적극적으로 역할하고 참여해 주신다면 비구니 스님들의 요구를 종단 내부에

반영하기가 한결 수월해질 것입니다.

비구니 회지의 발간을 거듭 축하드리며 발간에 힘쓰신 모든 분들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전국 비구니스님들의 단일조직인 전국비구니회가 더욱 발전하여 대한불교조계종이 이 시대의 등불이 되는 힘찬 발걸음에 중심이 되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불기 2553(2009)년 11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